

[화제의 인물]

산재예방 유공 국무총리상 수상



한현미 / 아시아나항공 상무, 한국산업간호협회 부회장

제 43회 산업안전보건주간행사가 7월 5일에서 1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첫날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애쓴 산업보건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포상이 있는데, 올해의 산재예방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의 영예는 본 협회의 제 2부회장인 아시아나 항공 한 현미 상무에게 돌아갔다.

한 현미 상무는 아시아나 항공의 유일한 여성 임원이자 금호그룹 전체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임명된 유일한 여성 임원이다. 1983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을 졸업 후 1983-1990년까지 대한항공 민항공의료센터에서 산업간호사 및 수간호사로 일하였고, 1990년 아시아나 항공의 의료서비스팀을 설립하면서 지금까지 아시아나 항공에 몸담고 있다. 지난 27년간, 특수한 산업장의 하나인 항공산업장의 간호실무 및 관리 일선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여한

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먼저 항공산업 분야의 산업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의 표준화 시스템과 뇌심혈관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프로그램을 포함한 근로자 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환경안전보건 합동 작업환경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작업 관련 상해 요인의 제거, 작업환경 측정 및 작업장 순회점검, 현장방문 의료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환경안전보건 경영을 실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항공업계의 위기를 몰고 온 SARS 발생시 국제기구와 긴밀한 접촉을 통하여 자체 방역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공로로 2003년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바 있다. 그밖에 산업간호 인재양성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항공간호 서비스모델 개발 및 항공간호 교재 개발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보건의료부문의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아 환경/고객담당 임

원으로써 근로자 보건관리 영역 뿐 아니라 녹색성장 및 환경과 고객서비스 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아시아나 항공이 서울특별시 환경상, 국가 환경경영대상 대통령상, 서비스 품질 최우수 기업상을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동안 제 18차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 국내 조직위원과 전국산업체 산업보건협의회 부회장을 포함하여 산업보건 및 환경관련 단체의 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을 뿐 아니라, 현재 본 협회의 부회장으로 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한 현미 상무의 부하직원들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관리자가 되고 임원이 될수록 부하직원들의 경력개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각 구성원들이 성취하고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자녀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더 큰 기쁨이 된다고 하였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원상에 대한 질문에 한현미 상무는 인성을 가장 먼저 꼽았다. 상사와 동료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이었다. 폭을 넓히고 서로 신뢰관 자녀형성하는 것은 팀다. 품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위기상황에서 임기응변으로만 대처하거나 개인의 실리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조직의 나아갈 방향에 협력하는 자세가 신뢰를 얻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하였다. 아시아나 항공의 의료팀도 다른 산업장의 건강관리실처럼 타 부서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인정받는 의료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소

통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일관 근자세로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2005년 사내 노조 파업 당시 사업주와 노조 협상자리에서 “의료팀처럼만 하라”고 한 것만 보아도 산업장내 산업간호사들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가늠할 수 있겠다.

한 현미 상무는 아침형 리더형으로 아침 7시면 어김없이 하루 업무를 시작하는 맹렬 커리어우먼이다. 부지런하고 철저한 자기관리,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인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장과 개발을 지지하는 모습, 체계적인 분석과 전략적 기획을 바탕으로 한 업무 추진력으로 인정받는 대기업 임원으로서의 지금의 위치는 간호학을 공부하고 전문간호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할 정도로 간호인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지금은 산업간호사로 실무에 있을 때보다 의사결정의 어려움과 책임감이 더 크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사장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며 회답을 얻는다고 한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지금까지 한 현미 상무를 이끌어준 인생의 멘토들, 특히 고 전 산초 박사님의 전인간호에 대한 가르침과 우리나라 항공의학의 선구자이신 고 계 원철박사님의 항공간호에 대한 지지를 기억하며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하였다. 외길 산업간호 인생에서 어려울 때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훌륭한 멘토가 했던 것처럼 본 협회가 많은 산업간호사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서줄 것을 기대하였다. 동시에 회원들은 전문직업인으로서 경력개발을 위해 중요한 요건으로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왔

을때 잡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계발을 꾸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많은 산업간호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외롭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산업장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곳곳의 산업간호사들의 저력이 근로자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과 지금의 산업간호사의 입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이 상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